



自然公園과 野生鳥 < 34 >

재갈매기

- 학명 *Larus argentatus*
- 영명 Herring Gull

항구의 꽃이라 부르는 갈매기들의 날음은 언제나 평화스럽다.

선창이 있는 골목길은 항상 질척한 난장판이지만 서민들의 아우성과 바다내음이 어울린 삶의 터전이다. 항구에 갈매기가 많이 모이는 것은 먹이 때문이다.

내해의 어장막에서 그물질을 할때 튕겨져 나온 생선을 즐기고 어시장에서 버린 생선찌저기를 특식으로 생각한다.

또 이 새들은 인간과 친화력이 높아 우리들의 생활 언저리를 맴도는데, 도서지방

을 오가는 연락선 꿈무늬에 갈매기들이 따라 오는것은 승선객들이 던져주는 과자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갈매기의 종수는 과거 80년대까지만해도 13종이 알려졌으나, 최근까지 7종이 새로이 미기록종으로 추가되어 20종에 이른다.

대다수는 겨울철새이고 일부는 여름철새로 한반도에서 번식하고 통과하기도 하는데 올해 5월 시화호 염습지에 처음 등지를 튼 검은머리갈매기 관찰은 지나친 간섭으로 막을 내렸지만 내년에 기대를 걸어본다.

재갈매기는 우리나라 조류 생태학상 겨울 철새로 분류해 왔는데, 세계절을 통하여 한강에서 관찰되고 있는것은 1회 비상에 무리가 없는 지역에서 번식을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 전역을 통하여 재갈매기가 번식하는 곳은 함경북도 선봉군 알섬과 평안북도 운무도로 확인된 바로는 경기도 강화도에 인접한 해상비무장지대 상에 있는 유도에 수십쌍의 재갈매기들이 이 바위 너설에 앉아 있는 모습을 관찰한 일이 있는데 이곳에서 번식하리라 믿는다.

또 이 유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

에는 재갈매기들이 사시사철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텃새가 된것으로 판단되며 한강 하류는 물론 도심권의 강상을 따라 배회하는 것이 사냥을 온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서울 도심의 중랑천을 따라 동마장 도축장이 있는 지류에는 계절에 구애없이 재갈매기들이 수시로 날아오는것을 십수년간 관찰하였는데 배수구에 흘러나온 축산 폐기물을 먹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미 텃새가 된 재갈매기가 늘어나 한강을 수놓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또 환경오염원인 폐기물을 먹어 치우는 재갈매기들의 공격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글·사진 李正雨
(삼육대학교수·동서조류연구소장)